

제 3 장 권력

◆1교시: 권력의 종속과 탈경계

▲기생충, 의존하는 권력

노동이라고 불리는 것 혹은 잠재성이라고 불리는 것 혹은 활력이라고 불리는 것, 언어학적으로는 암호라고 불리는 것, 차원을 확인하는 거까지 했습니다. 이게 없다고 말하는 경향이 원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부, 노동에는 자본이 대응하고 지금 여기에는 액추얼이 있으니까, 대응어들을 금방 생각할 수가 있죠.

이러한 지배적인 것들, 형식적으로 지배적인 것들로 나머지 것들을 전부 흡수해 버려가지고 이것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정치학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이것을 그러한 관점에서부터 분리시켜가지고 이런 게 엄존한다고 하는 것을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 편향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은 다 환상이란 말이나. 이거를 실재적인 거로 해놓고 이거를 다시 비실재적인 거로 돌리는 경향이 가능한 것이죠. 근데 그것역시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이것의 형태로, 폼으로, 내용과 형식관계로 만약 본다면, 외피로서 존재하지만 이것들 역시도 버추얼처럼 실재하는 것으로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만 실재 대 실재의 관계로서 우리는 이항관계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경계를 두면서도 우리는 다시 한 번 지금 양항, 위와 아래 간의 관계를 다시 한 번 아래를 중심으로 강조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기생충이라고 해놓은 그 부분에 있죠. 3페이지인데요.

3페이지에 나온 기생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미리 말한 것처럼 이 부분이 비실재적이라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다거나 그런 말들을 자꾸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게는 사고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를 미리 하고 들어가는 건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권력이 구성이 된다면, 대통령선거가 있고, 총선거까지 있고 하기 때문에 권력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언젠가 한 번 얘기 한 것처럼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는 세금을 내서 권력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투표소에 가서 나의 권리를 누군가에게 위임하는 거죠. 위임해 주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자본에게 판매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게 정기적 임금을 받던,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비정규적인 임금을 받던, 우리 몸을 자본에게 판매를 해서 물리적이거나 정신적인 우리의 힘, 물리력과 정신력, 근력과 총 기력과 심적인 힘과 모든 것들을 양도해주는 거죠. 자본의 것으로. 대의 기능, representation, 투표에서의 대의 기능이나 판매행위나 징세행위나 이런 게 만약 하나도 없다고 가정해보면 어디서 국가가 생겨나고 어디서 자본이 생겨나고 그러겠냐는 거죠. 결국 세금을 걷는다거나 투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매일 매일의 일상적인 우리 노동의 판매행위를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자본을 생산하고, 권력을 생산하는 아주 반복되는 늘상 반복되는 과정임을 우리가 끊임없이 의식해야 된다는 거죠. 이 끈을 놓아버리게 되면 불쑥 권력이 다가오게 되고, 자본이 우리한테 갑자기 닥쳐와서 우리 몸을 팔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되는데, 바로 이 총위로부터 이 총위의 힘의 이전, puissance의 끊임없는 이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바로 이전 과정, 이전의 방식으로, 의임의 방식으로, 양도의 방식으로 우리 삶이 현재 나

타나고 있기 때문에 노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계속 가난해지고, 투표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투표하는데 계속 무력해지고, 세금을 열심히 내는 사람은 세금을 열심히 내는데 점점 자기는 힘이 없어지는(억압받는) 세금 가면 본인들의 월급, 그 다음에 경찰들의 봉급, 기타 사기 치는 행정관들의 봉급 해가지고 나쁜, 우리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에게 계속 돈을 댄다는 거죠. 우리가 편당을 그렇게 하는 거죠. 이래서 결국 위에 것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죠. 여기에는 어떤 식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자세히 보면 보이는, 전동벨트가 힘을 이전시키는 전동벨트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일상적으로 가동되어 있다고 보는 게 아마 정확할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의식을 한다면 권력이 갖고 있는 힘, 혹은 자본이 갖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버추얼의 힘, 노동의 힘 혹은 활력의 힘의 변형태이다. 그 둔갑한 형태, 마법의 방식으로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있는 그런 힘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그게).

그래서 이 두개를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개개인들의 모든 힘이 뭉치면 뭉칠수록 권력의 힘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권력은 더 강대해지잖아요. 어쨌건 그렇게 구성된 권력은 많은 사람의 표를 모아서 구성된 힘이기 때문에 정책 집행이라거나 이런데서 추동력이 큰 거죠. 이번에 이명박은 투표인 수의 50%에 가까운 득표를 하고 전체선거인에서는 약 30%정도 득표를 했을 거예요. 30% 정도 면은 사실 얼마 안 되는 거죠. 70%가 이명박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명박이 선거인 전체의 8,90%를 득표를 한다면 눈치 볼 게 없는 거죠. 불도저처럼 밀어붙일 겁니다.

그런데 30%라면 눈치를 계속 봐야 되는 거죠. 언제든지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 총선에서의 공천권을 둘러싸고 잡음이 이니까 국민이 실망하니까 우리 조심합니다. 그렇게 단속하게 되는 거는 자기가 얻은 표라고 하는 게 30%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에 대한 의식이죠.

근데 여하튼 위임된 권력임으로 해서 이 권력이라는 건 여기에 끊임없는 종속관계, 의존관계에 있는 것이죠. 이 의존성, 이것이 이것에 의존하는 거죠(사실상). 우리 삶은 이게 여기에 의존하는 거로 나타나는데 실제로는 이게 여기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의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선거 때만 간간이 나타나죠.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하는가하면, 만날 돈 뺏어가더니 선거 때만 되면 봉투에다 돈을 넣어서 주기도 하고, 이런 식의 우리로서는 참 보기 드문 그러한 경험들을 선거철이 되면 잠깐 하게 되지만 딱 선거전 끝나고 나면 반대의 모습, 어깨 힘 딱 들어가고 고압적인 그런 모습 있죠.

BBK사건 때문에 찍은 동영상을 한나라당에 팔려고 했다가 붙들린 그 친구한테 한나라당 국회의원인 한 말이 너 같은 놈 없애는 건 시간문제다. 라고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감옥에 가셔도 공포감에 사로잡혀있다고 기사에 보니까 나와 있던데요. 의존하고 있는 사람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패러독스, 이게 우리 삶의 현재의 구조죠.

자본론을 읽어보면 맑스가 수백 번 되풀이하고 있는 용어가 나타납니다. 노동자의 힘이 계속해서 자본의 힘으로 나타난다. 이 말은 거의 몇 페이지 넘기면 한 번 계속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이 이것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강조를 하거든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자본의 힘이란 게 근원적으로 노동의 힘이라는 것이죠. 권력의 힘이 근원적으로 활력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어리티를 만약에 따진다면 우리는 두 개가 다 똑같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둘 중에 더 근원적인 게 있는데 근원적인 건 당연히 이쪽이라는 거죠. 이게 더 근원적이고, 이것이 종속적인 거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여기에 기생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의존에 대한 좀 더 비하적인 표현이 기생하고 있다.

▲유목주의와 이종혼합

그 다음에 유목주의와 이종혼합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유목주의라고 하는 말은 우리 시대에 상당한 오해를 겪고 있는 용어이죠.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유목주의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유목민들에 대한 우리들의 표상이 있습니다. 낙타라거나 양이라거나 끌고서 빙빙 돌아다닌다고 하는 게 유목민들에 대한 우리 생각이죠. 근데 유목민들에 대한 그러한 표상은 반드시 옳은 건 아니라는 것이죠.

유목민들은 오히려 주저앉아서 눌러 있는 때의 삶이 더 길죠. 빙글빙글 돌아다니는 그 때보다는 이곳이 눌러앉아서 살고, 자기네들이 다음 양을 칠 풀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면 딱 곳으로 이동해가지만 대부분은 눌러앉아 있는 건데, 이 유목성, 노마드nomad라고 하는 말은 유목민으로 환원될 수 없는 철학적 의미를 갖습니다.

칼 슈미트 같은 사람들이 노마디즘에서 사용되는 노마드라고 하는 것의 어휘, 말뜻을 많이 규명을 하곤 하는데요. 들뢰즈도 천개의 고원에, 13장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유목주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목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질서를 흔드는 것, 길을 뚫는 것, 질서를 변형시키는 존재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걸 의미합니다.

노마드는 일종의 불문법으로 상용이 되었었어요. 성문법 이전의 불문, 성문화된 규정이 없는 불문율로서 규정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말의 흔적을 오토노미autonomy라고 하는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미의 نوم이란 건 노마드에서 연유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율, 음악에서의 음을 있죠? 법률, 음을 할 때의 그 율, 리듬을 의미합니다. 삶의 리듬. 그러니까 법률이거나 음율이거나 간에 이 율이라는 게 바로 노마드의 본래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어떤 리듬, 질서라고 하면 이 말을 상기시키니까 지금의 우리 맥락에서 안 맞겠는데, 새로운 리듬을 생성해내는 힘, 이것을 노마드라고 부르는 거죠.

지금 네그리는 노마드의 좀 더 동적인 성격을, 들뢰즈보다는 더 동적인 성격을 부여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민현상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네그리는 파악을 하거든요. 또 하나는 탈주민들입니다. 자유의 새로운 공간 같은데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예컨대 불가리아가 붕괴될 때, 불가리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유고슬라비아나 그리스라거나 서구 쪽으로 다 도망을 쳐버리는. 그래서 국민의 반절이 사라져버리니까 국가가 주저앉아버리는 현상을 설명을 합니다. 그거를 엑소더스exodos라고 부르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건 출애굽, 대탈출, 대탈출이 불가리아에서 일어나고 실제로 불가리아는 사회주의권의 대명사죠.

사회주의권에서 우리가 백야라거나 그런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맨 처음에는 인텔리들이 도망을 쳤죠. 예술가와 지식인들이 사회체제로부터 일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노동자들이 일탈을 하게 되는 그런 수순으로 탈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도 계속 탈북자들이 발생하고, 두만강 유역에는 도망가지 못하게 총으로 겨누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강에서는 때때로 시체가 뜨는 형편이니까 그래서 탈주의 현상과 이민의 현상이라고 하는 이것을 대개 중시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율의 발견, 새로운 리듬의 발견, 새로운 구성의 구축, 새로운 구성의 출현이 실질적인 이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민이라거나 탈주의 모습으로.

그래서 탈주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문화적 혼종관계에 빠져들어 간다. 아까 알프레도라고

해서 가나에서 온 사람이 잠깐 왔었는데, 우리는 지금 지하철에 가면 외국인들을 여기저기서 발견할 수 있죠. 한민족이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신화도 깨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의 수가 100만을 넘어서리라고 하는 추산이 나올 정도이니깐 상당히 깊은 차원의 혼종이 이 땅에서도 전개되고 있는데, 미국사회 같은 경우에는 원래가 이민으로 구성된 사회잖아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가가지고 원주민들을 추방하면서 만들어낸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강력한 혼종관계, 뒤섞임 관계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이 바로 오늘날의 삶 속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이주의 문제를 일종의 자유화의 과정으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탈주, 매끄러운 사회구축의 힘

여기는 혈통주의 같은 게 들어설 자리가 없죠. 아까 해러웨이 강의하시는 분도 순종주의에 대한 경계를 했는데, 뭔가 아주 순수한 것에 대한 추구,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뒤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거는 초월적인 것에 대한 염원, 기대 혹은 집착 이거를 버리지 않은 것이고, 신화적인 것, 영웅적인 것, 이런데 대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파시즘 같은 거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 것이죠. 게르만, 순수 혈통주의가 파시즘을 지탱해 나간 이데올로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뚝을 통해서 유지된다는 거죠. 경계.

그래서 배제하는 것, 선별하고 배제하는 것, 이질적인 것들을 추방함으로써 순수성이 유지되는 거라면 그때의 순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권력에 대한 집착, 그래서 그 자체를 다른 것의 위에 옹립하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들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근데 이게 근대사회에서 보면 말뚝은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고, 뭔가 어떤 욕망의 표현으로 보이기보다는 자연스런 현상처럼 보이죠. 국경이 있다고 하는 것, 국경에는 철조망이 있거나 검문이 있다거나 관세가 있다거나 다양한 유형의 문턱이 있어가지고, 자유로운 어떤 물질과 인간과 요즘은 지식의 이동까지도 인터넷 같은 경우도 다 관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죠. 정보의 이동을 차단하는 것으로 작용을 합니다. 바로 이 경계, 말뚝들을 걷어내야 횡적인 트랜스 관계, 이게 뒤섞임이 가능해지는데, 근대에서는 국경이라고 하는 말뚝 때문에 그게 불가능했죠. 근데 경계는 국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적관계,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들, 흑인과 백인이라고 하는 그 경계들, 하여튼 다양한 유형의 경계들이 있어가지고 곳곳에 우리 삶에 말뚝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줄무늬, 흠, 들뢰즈는 흠이라고 불렀고, 줄무늬라고도 불렀는데, 흠이 이렇게 파져있는 체제로 보는 거죠. 말뚝이 곳곳에 박혀있으니까. 서로 간에 이동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흠들이 패여 있는 체제, 이게 근대사회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흠을 만들어내는 말뚝들을 뽑아내버린다면 어떤 사회죠? 일단 매끄러운 사회가 될 수 있다. 들뢰즈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흠패 인 사회, 매끄러운 사회, 매끄러운 표면이 구축된다고 보죠. 물론 이것을 그냥 완전평등사회 이런 것하고 지금 즉각 동일시해선 안 됩니다. 어쨌건 매끈한 사회가 올 수 있는 건데 바로 이민이나 탈주가 그런 매끄러운 사회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들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종의 벽이라거나 국가의 경계라거나 성적 경계라거나 이런 것들이 어쨌건 허물어질 수 있는 전제들을 창출하고 있다. 정말로 그게 다 허물어졌느냐 라고 물으면 당연히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

그러나 그 전제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 성별 경계는 여전히 엄존하고 있지만 영화나 소

설이라거나 우리가 체험하는 현실 속에서 그 성별경계를 넘어서는 필요성에 대한 강조, 넘어서고 있는 사례에 대한 형상화,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제기되어 짐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본래 남자 여자였느냐, 우리가 본래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이었는가. 대체 이런 구획들이 언제 탄생했고,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미치고 있는가. 이런 경계들에 대한 우리 태도는 뭐여야겠는가. 이런 것들을 문제를 계속 던지는 거죠.

오늘날 예컨대 문학에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경계를 넘어서입니다. 작년 내내 문학평론하는 사람들은 바로 탈경계시대라고 해가지고 디아스포라와 이산과 탈경계의 문제, 이게 문학평론의 핵심주제였거든요. 저도 그와 관련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만 어쨌건 소설작품 속에 언어경계를 넘어서는 사례도 많이 나옵니다. 한글만 쓰는 게 아니고, 이상한 언어들을 같이 써버리는 거죠. 요즘 한국 소설에서 철수, 영희 이런 한국식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다른 유형의 이름들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벌써 아이디라고 하는 것,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는 경계에서 발생하는 건데, 아이덴티티에 대해서는 정말 경계심을 갖기 시작했잖아요.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다는 단 하나의 정체라는 것에 대해서는.

◆2교시 : 민족국가 주권이 제국주권으로 이행

▲삶-권력(bio-power)

일반지성과 삶-권력하고 업-기계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다시 권력이야기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pouvoir, 삶-권력이란 건 bio-pouvoir, 영어에서는 bio-power라고 되어 있습니다. bio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이 말에 대한 번역어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생체권력, 혹자는 생명권력, 저는 삶-권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다양한 번역어가 주어지고 있는데, 우선 생체라고 하는 이걸 따지기 전에 bio라는 말의 어원을 한 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두 단어를 구분하는데요. zoe하고 bio를 구분합니다. zoe는 뭐냐 하면 우리가 동물원에서 보는 zoo, 지난시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뭐라고 그러죠. 생물학적인 거라면, 이거는 사회적인 것에 적용되고 혹은 정치적인 것에 적용되는 것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어쩌고 했을 때의 삶의 중요한 포인트를 여기에 둘 것이라고 하는 걸 공언을 하죠. 비오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것에서 연유하는데 이 비오가 사용되는 용법은 철학자들마다 다르거든요.

예컨대 푸코 같은 경우에는 18세기에 biopower가 생성되고 있다면서 제일 전형적인 예로 드는 게 인구통제입니다. 생산을 결정하는 거죠(권력이). 아마도 이건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겠죠. 생산을 통제함에 있어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수단이 하나는 전염병이고, 또 하나는 전쟁이죠. 전염병 같은 게 확산될 때 인구를 줄일 필요가 있을 때는 그냥 방치하는 거죠(권력이). 흑사병이라거나 이런 거 나타났을 때 줄일 필요가 있느냐에 따라서 대처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쟁이라는 것도 생체 인구조절을 하는 방법으로 사용이 되는데. 지금 그런 의미에서라고 본다면 인구라는 생체라는 번역이 제일 맞겠죠. 살아있는 생물체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해러웨이 같은 사람도 bio-power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생물학자이기 때문에 생체권력이라고 번역할 때 제일 적절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해러웨이는 요즘 시야를 더 넓혀가지고 유전공학이라거나 생명공학이 나타나면서 bio-power가 생명자체에 대한 명령, 생명을 생산하고 죽이는 생사여탈의 문제로 나아가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생체 권력에서 어떻게 보면 생명 권력으로 번역할 수 있는 것으로의 bio-power의 진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러웨이 같은 경우에 지금은 생명 권력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문맥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더 잘 들어오고.

그런데 네그리에 있어서 bio-power라고 하는 거는 그 문제보다는 더 사회성과 정치성에 있습니다. 생체라는 문제보다도 오히려 지금까지 얘기한 노동이라는 문제에 들어가 있어요. 노동행위,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게 노동하는 존재고, 노동한다는 건 서로 연결하고 협력되어가지고 뭔가 공동적인 작용을 하는 사회적 움직임, 사회적 운동인 것이죠. 사회적 생산 활동인 것이죠. 사회적 생산 활동을 권력과 자본이 어떻게 권력적으로 통제하는가. 여기에 초점이 가있는 것이고, 유전자 공학이라거나 멀티튜드에 보면 온코마우스 같은 새로운 생물종의 발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쨌건 생산과 관리와 처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적 삶의 관리라는 것의 한 마디마디로, 지절로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그리에게서는 생체나 생명이라는 말보다는 바로 삶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 책에서는 삶-권력이라고 불렀는데.

▲국가권력에서 삶-권력으로의 이행

우리가 이전의 권력을 흔히 부르는 방식이 어때요. 제일 많이 떠오른 말, 권력의 맨 앞에 붙는 수식부라고 해야 되나, 복합어 중에 앞에 붙는 말이라고 해야 되나, 권력 앞에 어떤 말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정치권력 좋습니다.

정치권력인데, 정치라는 건 주로 국가가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국가권력, 이 말이 국가가 정치의 중심 장소이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겠죠. 바로 국가권력으로부터 삶-권력으로의 이행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책 속에서는 국가권력 삶-권력으로의 이행이라고 말하지 않고, nation state, 민족국가로부터 엮파이어, 제국으로의 이행으로 일단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국가권력으로부터 bio-power로의 이행, 이것 역시도 이 책 문맥 속에서 우리가 추출해볼 수 있는 권력 이행론입니다.

그럼 국가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의 무대를 계속해서 국가로 환원시킵니다(일단). 정치를 삶의 현장 속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삶 속에 있던 정치적 활동성들을 전부 국가 주변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의사당이라거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해가지고 그쪽에 중요한 모든 것들이 집결되게끔 하고, 시민들의 삶은 벌겨 벗겨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정치가 중앙 집중화되는 과정에서 권력의 국가화가 나타나는 건데, 바로 이것의 이완과 해체의 과정이 민족국가 주권이 제국주권으로 이행하면서 출현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바로 우리가 지금 이 평면, 아래 쪽 그어놓은 것들을 우리는 삶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삶이라고 하는 것도 힘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이 두 개로 우리는 쪼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임의로 쪼개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쪼개졌기 때문에 쪼개는 건데, 우리가 일상에서 살기가 참 힘들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성적이 안 오르는 학생들, 그 다음에 취업을 하려고하다가 좌절당한 실업자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실연을 당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삶에서의 어떤 좌절감을 표현할 때, 참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산다는 게 힘들다는 것이죠.

들뢰즈는 아예 이 두개의 단어를 어떻게 구분을 했는가하면, La vie하는 것하고 윈느 비 Une vie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La vie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관사가 붙었잖아요. 저 삶, 이 삶 할 수 있는 vie, 이게 life라는 말인데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것저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vie를 말하는 거죠. 그 삶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컨대 도둑인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막하고 있을 때하고 몸이 아파가지고 몸져누워서 누군가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때하고를 비교해보면 우리는 몸져누워있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둘 다 La vie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 각각에서 생명은 도둑질을 하고 있을 때도 vie이고 아파 누워있을 때도 비잖아요. 그 vie가 있는 거죠. 이 삶, 이 불특정한 삶, 부정관사적인 삶, 이것을 잠재적 삶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형태로 삶이 현실화되면 액추얼하게 되면 La vie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강의를 하고, 수강자이고 집에 가면 아버지이거나 아들, 딸이거나 어찌고저찌고하는 그런 개별적인 관계 속으로 누구의 친구이거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이런 관계 속의 삶하고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의 삶으로의 분화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

니다. 그랬을 때에 결국 삶-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게 하나의 puissance고 pouvoir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삶-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Une vie라고 하는 걸 La vie로 환원시키고 전환시키는 힘이죠.

근데 옛날 국가도 사실은 이 행위를 했습니다. 결국 이 삶을(넓게 보면) 환원시키는 작업을 했는데, 왜 이걸 갖다가 state power라고 부르지 bio-power, bio-pouvoir라고 부르지 않느냐. 이쪽으로 집중시키는 행위를 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의 제국권력은 아예 내려간다는 것이죠. 내려가서 권력자체가 Une vie의 산포 되고, 흩어져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사실 국가라고 하는 영역은 점점 형식화되고 껍데기로 이렇게 남게 되고, 실질적인 권력의 형태들은 우리의 심장으로 들어온다거나 두뇌로 들어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고, 우리의 인간적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우리들 욕망으로 되고. 이랬을 때 삶속으로 들어와 있는 권력, 삶을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마치 삶인 것처럼 혹은 삶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그 권력, 이것을 우리는 bio-power라고 부른다는 거죠.

오늘날 현대 정규직 노동자들이나 혹은 노동조합으로 결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비정규직과의 차별을 말로는 주장하지만 그러나 욕망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주장함으로서 일단 자기정당성, 윤리적 자기정당성을 확보하고, 현실에서는 무관심하거나 외면해버림으로서 이 차별을 다시 보전해가지고 자기의 특권을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현재는 굴러가죠.

결국 정규와 비정규의 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차이는 항상 권력의 발생지점인데 이 차별이, 권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권력이 국가에 의해서 강제되어가지고, 너 비정규직에 대해서 계속 차별하는 마음을 가져. 라고 명령을 받아가지고 어쩔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 내게 들어오는 더 큰 이득들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 욕망에 이끌려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욕망 속으로 욕구 속에서 매 순간순간의 이끌림 속에서 권력이 이렇게 작동해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bio-power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같은 것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꾸 전쟁의 욕망들을 갖는 것이죠. 이라크 전쟁을 벌인 주체는 부시일지 모르나 병사들은, 이번에 나간 병사들은 컴퓨터게임, 전쟁게임으로 청소년기를 보낸 바로 그 세대들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고, 전쟁터와 자기 방안이 구분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컴퓨터게임하고 집에서도 컴퓨터게임하는 거니까. 그리고 타격대상이라고 하는 게 피를 튀기는, 실제의 뼈와 살이라기보다는 모니터 상에서 명중했다. 빗나갔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인포메이션만 보고 있는 것이니까. 이런 상황들, 이게 우리한테 다가온 새로운 유형의 상황이다. 일반지성은 나중에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것이고, 아까 어느 정도는 지식 노동화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역사 서술의 두 가지 방식

제일 중요한 게 4, res gestae하고 historia rerum gestarum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게 이 책에서 번역이 잘못되어가지고 이해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실제로는). 우리가 쪽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대응시키면 거기 6페이지 맨 아래 도표를 봐주세요. res gestae라고 하는 것은 버추얼리티, 잠재성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historia rerum gestarum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현실성에 해당되는 겁니다. 역사를 서술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역사라고 했을 때에는 어때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거, 오늘날은 많이 혼종

되고 이완되었지만 예전에는 전형적으로 왕조사적이었잖아요. 이씨조선, 고려시대 왕씨 계보, 신라로 가면 김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혈통의 계보를 따라서 쪽 이어져가고 있는 계통사로서의 왕조사를 전형적인 역사로서 이해해왔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게 쪽 혈통적으로 이어져 간다는 거죠. 이걸 성경에도 나오는 거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아가지고 계통적으로 이어져가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시간과는 우리로 하여금 질서를 표상하게 하죠. 쪽 흘러가는 일관된 흐름이 있으니까 이걸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순응해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우리한테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생산이 바로 *historia rerum gestarum*을 중심으로 해서 짜여 질 때에는 명령 질서가 구축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명령의 권한을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다. 실령 그런 혈통적 명령권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권력을 사가지고 지배하는 건 너무나 응당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식의 명령질서에 대한 정당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80년대의 저항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게 소위 민중사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망원한국사연구실이거나 구로역사문제연구소라거나 민중사를 제기해서 민중을 바로 역사의 주체로 부각을 시키는 거죠. 이거는 전형적으로 맑스주의적 관점의 한편에서는 도입이고 한편에서는 과거의 동학이라거나 공동체 운동들에서 유래한 그런 관점들의 도입인데, 어쨌건 민중사라라고 하는 게 나타나서 왕조사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했죠. 아마 어느 정도 민중사적인, 그러나 사실은 민족사적인 요소가 더 컸던 총괄된 역사서가 해방 전후 사회의 인식이었었죠.

근데 여기의 관점은 이 혈통을 어떻게 보면 가져오는 거죠. 이 혈통을 가져오는 건데, 지금 제가 혈통이라는 데 유의해야 합니다. 이 혈통을 가져오는 방식을 보면 이 흐름과는 대별되는 다른 힘이 있다는 건데, 그거를 민중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그거 451 페이지에 보면, 처음에 인용된 말 있잖아요. 이제 민중들이 실존하지 않는다. 혹은 아직까지는 실존하지 않는다. 민중들이 사라지고 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민중이 사라지고 있다면 역사가 어떻게 씌어지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우리는 그냥 민중을 편의적으로 보면 버추얼리티라고 이렇게 동격으로 만들어서 네그리나 하트가 이야기하는 다중이라는 개념도 민중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생각해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하기가 쉽죠.

그런데 이 두 저자들은 거보다 더 구분을 섬세하게 하려고 합니다. 민중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에서 보면 링컨이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했을 때, 다 그게 인민이라는 게 다 *people*이고 민중이잖아요. 이 민중이라고 하는 것이 흠스 철학 이래로 씌어져 온 유래를 따지고 보면, 국가권력을 서포터하고 국가권력을 구성하는 주체였다는 거죠(끊임없이). 세금을 강제징수당하고 우리는 노동을 강제로 빼앗기고 이랬다고 지금 묘사를 했지만 민중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측면만을 갖는 게 아니고, 바로 세력들 간의 관계를 구성되어 있는 지구 즉, 흠스 패인 지구에서 자기의 생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자발적으로 노동을 하고, 자발적으로 권력을 구성해내기 위한 대의활동에 참가했다는 겁니다.

대의제라고 하는 거는 17,8세기에 생겨난 정치형태, 민주주의 자체가, 민주주의란 말이 데모크라시, 데모라고 하는 게 *people*이라는 말인데요. *people*지배, 민중지배라는 것이죠.

데모크라시라는 게 17,8세기에 바로 민중에 의해서 구축되어진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고 말한 측면 말고, 이제 흠스 패인 지구 속에서 각 지역적인 주민들이 스스로 민중을 구성해가지고, 스스로 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구성해내는 그 측면도 동시에 봐야한다고 보는 거죠.

그때에 권력구성에서 제외되는, 그 제외는 강제로 배제되는 경우도 있고, 스스로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외되는 사람들, 즉 주권이 아닌 방식으로 살아나고자 했던 사람들을 다중이라고 불러요(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민중하고는 어떻게 보면 사실 대립적인 의미를 갖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나중에 막 역전되기 때문에, 어쨌건 그 측면까지를 우리가 의식해야만 민중으로 다중이 환원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res gestae*라고 하는 것은 잠재성의 세계, 잠재성의 평면에서 무수한 그 차이들이 득실대고 미분화, 분화까지 포함하는 주사위 던지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미분화 운동은 사실은 잠재에서 잠재로의 운동이거든요(엄밀히 보면). 현실에서 잠재로의 운동으로 마치 보이지만 이게 분화를 포함하는 것으로서의 미분화를 보면 잠재적인 게 계속 잠재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동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체라는 것도, 예컨대 물리학적으로 보더라도 분자, 원자들의 운동들이 끊임없이 되풀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몸이 아프다. 그럼 뭔가 세균과의 관계 혹은 기관들의 상호 결합이 안 된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미분적 영역에서의 작용들이 유기체성하고 충돌할 때 우리는 아픔을 느끼죠(일반적으로). 여하튼 미분적 영역에서의 끊임없는 운동들의 역사가 있는데, 이게 바로 업(業)이라고 부를 수 있는 *res gestae*라고 할 수 있는, 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현실성 속에서 어떤 현상을 갖추고 나타났을 때, 몸을 갖추고 나타났을 때, 그게 리바이어던이든 혹은 생물학적 개체가든 뭐든간에 몸을 갖추고 나타나고 그것들의 역사를 서술할 때 *historia rerum gestarum*이라고 본다는 거죠. 당연히 주류역사는 *historia rerum gestarum*에 부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누굽니까. 하트와 네그리는 바로 *historia rerum gestarum*의 역사의 내부에 들어가 봐서 그 안에서 바로 그 역사에 저항하고, 그 역사를 넘어서려고 하는 그 힘, 그 활력의 힘들의 움직임을 주목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gestae*의 측면, *res*라는 건 그냥 리얼한 것 혹은 *thing* 이 두 가지 의미로 라틴어에서는 사용이 되는데, 그냥 발생적인 것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자는 겁니다.

근데 독일어에서는 영어에서는 역사라는 말이 *history*라고 해가지고, 이게 *his story* 이렇게 보통 분석되면, 신의 이야기죠. 그 사람의 이야기라는 뜻이죠. 그 사람이라는 주체가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독일어에서는 역사가 물론 *history*로 불릴 수 있는 역사도 존재하지만 그와는 다른 역사를 일컫는 말이 있는데, 역사라고 하면 *Geschichte*거든요.

*Geschichte*라고 하는 거는 *Geschehen*이라는 동사에서 나옵니다. *Geschehen*이라고 하는 건 발생하다. 라는 뜻이에요. 일어나다. 뭔가가 일어나는 것, 발생을 말하죠. 어떤 일관된 줄거리가 계통적으로 계속되는 시간 말고 이 발생, 발생의 역사를 부르는 이름이 *Geschichte*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res gestae*를 발생사로서의 *Geschichte*라고 부르려고 하거든요. 발생사와 역사의 관계를 우리는 둘 다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를 얘기할 때 항상 그 내부에서의 발생과정, 다중들의 미분적인 운동들을 의식하면서 이 역사를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허한 주장이 되고, 그 공허한 주장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억압적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